

卷 頭 辭

韓國民法學계의 泰斗이신 淸軒 金曾漢 教授님과 韓國刑事法學계의 泰斗이신 金箕斗 教授님의 停年退任을 맞이하여 本法學研究所에서는 두 분께서 韓國法學계에 이룩하신 功績을 높이 기리고자 法學 第26卷 2·3號(合併號)를 두 분의 停年退任紀念號로 發刊하게 되었다. 두 분 教授님들께서는 解放以後 이제 막 韓國法學이 日本法學의 亞流에서 벗어나 獨自의인 體系를 定立하여야 한다는 絶對絶命의 當面課題를 안기 시작한 그 어려운 時期부터 韓國法學을 盤石위에 올려놓아야 한다는 莫重한 使命을 스스로 두 어깨에 짊어지신 채, 半生을 教壇에서 弟子를 養成하심으로써 또한 당신들의 精力의이고도 旺盛하신 研究活動을 끊이지 않으심으로써 韓國法學界를 成長·發展시키셨다. 참으로 두 분 教授님들의 半生은 바로 韓國法學의 歷史의 한 部分이자 얼굴이라 할 것이니 길이길이 後學과 弟子들에 의하여 讚揚받을 것이다.

淸軒 金曾漢 教授님께서는 1946年 서울大學校 創立時부터 法科大學에서 卓越한 理論과 明哲한 論理를 겸비한 名講을 통하여 장차 이 나라를 짊어질 將來의 法曹人이 될 弟子들에게 法의 精神과 法學의 方法論을 가슴깊이 심어 주셨고 또한 旺盛하신 著述活動과 學術活動을 통하여 韓國民法學의 폭과 깊이를 더하여 주셨다. 뿐만 아니라 法學界를 超越하여 法科大學長·行政大學院長·大學院長으로 奉職하시고 文敎部에 從事하시면서 法學教育行政과 法實務에 있어서도 당신께서 法學研究를 통하여 體得하신 合理性과 正義感을 바탕으로 훌륭한 業績을 남기셨다. 또한 教授님께서는 평소 인자하시고 훌륭한 人品으로 後學과 弟子들에게 學問의 大先輩로서 뿐만 아니라 人生의 大先輩로서 모범을 보이셨으니 教授님이야말로 가히 훌륭한 師表라 稱頌받아 마땅하리라!

한편 金箕斗 教授님께서는 1952年 以來로 法科大學에서 弟子들에게 講義를 하시면서 人間에 대한 깊은 研究와 理解를 바탕으로한 法理論을 主唱하심으로써 韓國刑事法學에 獨創的 領域을 마련하셨다. 당신께서는 講義時에 實定法解釋論에 앞서 法이란 人間을 支配하고 人間위에 君臨하기 위하여 存在하는 것이 아니라 人間을 保護하고 人間을 위하여 存在하는 것이라는 法의 使命과 法의 精神을 항상 일깨워 주심으로써 弟子들로 하여금 學問에 있어서나 實務에 있어서나 항상 참되고 바른 살아있는 法이 무엇인가를 探究하고자 하는 目的意識을 體得하게 하여 주셨다. 教授님의 法理論은 단순히 理論으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實踐的인 面에 의하여 뒷받침 되었다. 당신께서는 犯罪人更生, 犯罪人矯正, 靑少年犯罪豫防과 對策 등에 관하여 수많은 論文을 發表하시고 동시에 이 分野의 實務에 從事하시면

서 人間의 尊嚴性和 權利保護에 努力해 오셨다. 教授님께서서는 學問을 떠나 個人의 生活에 있어서도 人間愛가 가득한 인자하신 人品으로 항상 後學과 弟子들의 尊敬을 받아오셨으니 教授님 또한 가히 훌륭한 師表라 稱頌받아 마땅하리라!

이제 두 분 教授님께서 法科大學을 떠나신다는 것이 人生과 社會의 定則이라 諦念하면서도 못내 아쉬운 마음 금할 길이 없다. 비록 꿈은 法大를 떠나시나, 半生동안 이룩하신 學德과 經綸을 韓國法學界를 發展시키나갈 使命을 물려받은 後學들을 위하여 펼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또한 내내 健康하시기를 바라는 마음 限量없다.

끝으로 이번 停年退任紀念號를 더욱 빛내 주기 위하여 충실한 論文을 寄稿하여 주신 教授님들과 이번 號가 出刊되기에 이르기까지 協力하여 주신 여러 분들께 感謝의 말씀을 드린다.

1985年 10月

서울大學校 法學研究所

所長 徐 元 宇